

김명민 “‘장사리’ 촬영, 성패 떠나 사명감 느껴”

“배우로서 돌려드린단 느낌”...25일 개봉



배우 김명민이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촬영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감독 박경택 김태훈/이하 '장사리') 주연 김명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장사리'는 한국전쟁 중 기울어진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 양동작전으로 진행된 장사상륙작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평균나이 17세, 훈련기간 단 2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입된 772명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명민은 '장사리'에서 출중한 리더십과 판단력으로 유격대를 이끄는 리더 이명준 대위 역을 맡았다. 이명준은 772명의 학도병들과 함께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되는 인물. 상륙한 해변에서부터 인민군들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난관에 봉착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성공시키고자 한다. 이날 김명민은 "영화에 참여해보니깐 단순히 배우가 영화 찍고 개런티 받고 흥행하고 안 하고 떠나서 사명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 추모식에 손자, 손녀까지 오고 살아계신 몇 안 되는 참전용사 분들이 오셨다. 먼저 간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등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이분들 덕이구나 했다. 이순신 장군부터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가장 가까이에 6.25 큰 전쟁 치르면서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 속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고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다. 벅찬 감정을 느꼈고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왔다"며 "그건 그렇게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 배우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작품의 성패를 떠나서 하는 날까지 본인의 입구에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배우로서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서는 "되게 몽클했고 꼭 감독님 만의 목적인 감성을 끌어내는, 기교 없는 연출이 너무 좋았다. 언론사사회는 3차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도병들이 주지만 모두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려야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 학도병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두 전쟁하게 됐다. 2대 독자, 3대 독자가 많았다고 하더라. 다큐멘터리 다 찾아보고 유가족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 영화 참여했던 사람으로서도 믿어지지 않더라. 가슴 아픈 역사가 이렇게 묻힐 수 있나 이해가 안 됐다. 1997년이 돼서야 유골과 잔해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장사리'는 오는 25일 개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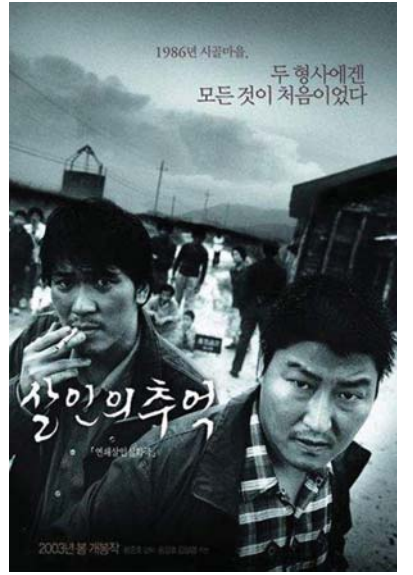
뉴스

‘살인의 추억’ 재개봉? CJ·롯데 “논의 NO...계획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 특징이후 재조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징된 가운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와 롯데시네마를 각각 보유한 CJ와 롯데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재개봉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시네마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롯데시네마 개관 20주년을 맞아 ‘살인의 추억’을 비롯한 작품들을 재개봉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재개봉 계획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뉴스1에 “최근 롯데시네마에서 ‘살인의 추억’ 재개봉 했었다”며 “재개봉 상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추억’ 개봉 당시 배급사였던 CJ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

도 뉴스1에 “현재 재개봉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4월 개봉한 ‘살인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배우 송강호와 김상경 박해일 등이 출연했으며 개봉 당시 525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도 성공했다.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으로 10명의 피해자가 5년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됐던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경찰은 연인원 200만명을 동원하고 3000여명의 용의자에 대해 조사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이달 18일 경찰은 부산에서 복역 중인 5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A씨의 DNA가 화성연쇄살인사건 희생자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해당 용의자를 상대로 두달간 진범 여부를 조사해오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젤예딸’ 기태영 “4년 만에 복귀...작품 위해 10kg 감량”



기태영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출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창경궁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KBS 2TV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극본 조정선/연출 김중창/이하 '세젤예딸') 기태영 촬영 인터뷰에서 4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소감을 밝혔다. 기태영은 "복귀해서 너무 좋다. 사람이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쉬고 싶다'는 괜한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일을 하니 현상이 제일 즐겁더라.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촬영장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여유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복귀작으로 '세젤예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시놉시스에 나

은 우진이의 캐릭터와 서사가 마음에 와 닿았고,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를 하기 직전에 살면서 처음으로 10kg이 췌다. 스스로도 '너무 편했다?' 싶어서 놀랐다. 살이 찌고 있다고 못 느꼈다. 그래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10kg를 빼고 시작했다. 지금 '슈돌'을 보면 살이 췌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김우진을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재미있었다. 우진이를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연기를 하면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하며 웃었다. 한편 기태영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서 출판사 담당길의 대표이자 편집장인 김우진 역을 맡았다. 까칠한 그는 강미혜(김하경 분)를 만난 뒤 점차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는 김우진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 호평을 얻고 있다. 기태영의 호연이 돋보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22일 중영한다.



김태희♥비, 둘째 득녀 가족 축복 속 안정취해

배우 김태희(39)와 비(37·본명 정지훈) 부부가 둘째 딸을 품에 안은 가운데,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19일 "김태희는 19일 오전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둘째 아이인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라며 "현재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기뻐하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복 속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김태희에게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축하와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우로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태희의 득녀 소식에 팬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축하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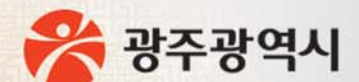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